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복음과 선행

성경: 누가복음 5장 29-32절

Tag: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5:29-32)

오늘 말씀은 김명용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복음과 선행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개혁신교회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가장 정통적인 말씀이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 가르쳐온 말씀이다.(흔히 이를 악용한 일부 소수 목회자가 자기 배를 불리는 자도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됨)

오늘날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썩은 인간의 이념이 들어있는 이념의 향신료를 복음에 희석시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본질을 변하여 부패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정의(PC)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정의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가공된 정의일 뿐이다. 우리는 옥석을 가려서 가짜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정체시키는 주요원인임.**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잘 분별하여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별명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기록하고 있다.(당시에 율법을 PC로 만들어 외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별명) 그런데 이 별명이 곧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요약하고 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계시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다.

당시의 세리는 왜 죄인이 되었나? 당시의 정치적 정의에 의한 정죄. (우리나라 일본 순사의 앞잡이와 같다. 후에는 이들이 가진 행정력 때문에 다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기용됨. 오늘날에 금융범죄자들을 다시 기용할 수 밖에 없는 현상과 동일함.-우선 판사들이 금융지식에 무지함(라임, 옵티머스 2조원대). 결국 2008 프라임모기지론 사태때의 주범들이 다시 기용됨.)

17 복음(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17)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남.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 제사법의 완성, 구원에 관한 의의 완성. 성결에 관한 율법의 완성.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완성이다.

-이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이다. 믿음 그 자체는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구원에 관한 모든 공로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 그 자체일 뿐이다. 그 공로가 율법의 완성이기예 의가 되었고,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구원의 의이다. 그 의는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분의 공로이고,(부처나 공자가 그 공로에 보탠 게 없고, 세상 아무도 그 공로에 보탠 것은 없음. 나의 믿음도-이것을 굳이 행위로 친다고 해도- 그 공로에 포함되지 아니함.-믿음은 공로가 아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이니, 믿음의 의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2:21)

믿음의 의, 또는 구원의 의는 율법을 지킨다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의가 아니다.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구원을 위한)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3:9)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3:18)

(하나님의 법정에도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다.-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 형사재판은 지옥에 갈 것인지를 천국에 갈 것인지를 정하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누가 제일 상을 많이 받고, 누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재판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지옥에 가고, 무죄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믿는 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즉,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기소가 된 상태라는 뜻.

-다만 정상 참작이 되어 낙원이나 연옥에 가게 되는 행운이 따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살전1:10 (사도바울의 최초의 원 복음)

~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살전1:10)

-우리가 죽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은, 실로 은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날이다.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죽음의 날이 은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날이다.)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는 날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날이다.



그러면 선한행위는 필요 없는가? 아니다. 선행도 아주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한 행위는 필요 없나요?

선한행위도 대단히 중요하다.

-후회없는 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개혁교회의 핵심. 구원은 믿음으로 상 받는 것은 선행으로.

우리의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이 선행과 연관되어 있다.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경건한 삶은 '상'과 관련이 있다.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5:10)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선행에 따르는 눈
공행사를 뜻함)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데, 이것이 선행을 뜻함.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집을 세우는데, 불로 심판하실 때에 나무나 풀은 불타 없어져
버린다.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
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교회를 상징)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

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전3:11-15)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런데 내 일생의 삶에 공적은 없다는 뜻.

누가복음 18장 29-30절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눅18:29-30)

마태복음 5장 11-12절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5:11-12)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닌 죄로 인한 고난에는 칭찬이 없다.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벧전 2:20)

마태복음 6장 19-20 일차적으로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
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
라 (마6:19-20)

성경은 구원에 관한 교과서

성경은 복에 관한 교과서

영광스러운 삶에 관한 교과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선행에 힘써 복을 받
아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과학시대의 창조론

성경: 욥기 38장 1-11절

Tag: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들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38:1-11)

김명용교수의 ‘과학시대의 창조론’ (1부) 2020.10.9. (11.23 2판)

과학적 무신론, 창조과학, 유신진화론을 넘어서는 온신학의 창조론 (온신학 출판부, 온전한 신학)

신다윈주의 진화론과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신다윈주의는 대부분의 다윈주의 증거들을 부인함.(진화의 유전자 자연도태를 중심으로 생식질 변이만을 진화로 인정하는 학설. 반면 다윈은 자연선택을 주된 진화로 인정.)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서는 다윈주의를 가르침. 내놓고 부인하지 않기 때문임.

-미국에서는 진화론이 아닌 관점에서 과학을 강의하면 강의를 금지됨.(2005년)

-100년 전에는 진화론을 강의하면 총장실에 불려갔었음.

-과학에서 하나님은 추방되고, 물질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물질주의가 팽배함.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됨.)

-정신도 물질에서부터 파생되었을 뿐.

-창조과학;다윈의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과학. 한때 열심히 잘 싸워줌.

-유신진화론;페이야르드 샤르뎅에 의해서 체계화 됨. 진화를 창조의 방법으로 이해함. 진화 속에 하나님이 계심. 기적의 하나님이 없음.

정통적 창조론이 아님.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창조론. 전능을 포기하신 하나님?

-유신진화론은 도킨스도 비판; 진화 자체는 목적도 방향도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 신다윈주의자들은 진화를 물질이 스스로 일으키는 변화로 봄.

1.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는 주장은 무식에 불과

-표피적으로 진화로 보이는 역사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

-진화론은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한 이론.

-양자 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진입한 과학.

-뇌과학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 도달함.

-분자생물학. 세포속에 존재하는 엄청난 정보에 놀람. 이 정보의 출처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를 접하면서 경이감에 빠짐. (현재로서 과학의 첨단에서 있는 분들은 함부로 진화론을 들먹이지 않음. 그들은 현재 신비에 접촉해 있는 상황)

이들 첨단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서 신학을 만나고 있다.

오늘의 진화론은 위기에 빠져있다. 기껏해야 우생학에 한다리 걸치려는 시도밖에 없다. 우생학의 연구결과에 진화론적 헛소리를 더하는 꼴이다.

-세상의 모든 근원에는 원자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의 한계

-원자는 양성자+중성자, 전자(소립자). 양성자와 중성자도 쿼크라는 소립자로 되어있음.

(원자의 크기는 1mm의 1만분의 1 정도이며, 원자핵은 1mm의 약 1조분의 1이라고 밝혀져 있다. 소립자인 전자는 원자핵의 약 1만분의 1크기이며 질량은 $9.1 \times 10^{-28}g$ 소립자물리학에서는 소립자의 크기를 0으로 설정한다.)

-중성미자;태양에서 방출. 지구 관통.

-양성자의 쿼크는 3개; 중성자의 쿼크도 3개.

-모든 소립자에는 반입자가 있음.(전기의 음양만 다름)

-현재까지 발견된 소립자는 300여가지. 광자도 소립자.

*양자의 파동에서 소립자 발생-스스로 물질이 만들어짐.(진화론자들 좋아함.)

-양자는 파동에 의해서 붕괴되고 소립자 발생.

-그러나 파동은 보이지 않는 의식과 정보에 의해서 일어남을 알게 됨.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는 정보는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임.

- 우주 정신이 아닌, 하나님.
- 양자는 파동인데, 관찰자가 있으면 입자로 변함. (이중슬릿을 통과해도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음)
- 양자의 움직임은 인간 크기의 물체를 미세하게나마 움직이게 할 수 있다.(2020.7.1.MIT)
- 우주와 생명체의 복잡한 정보의 근원이신 하나님

3. 자아와 의식 및 영혼은 존재하는가?

- 너의 뇌가 너 자신이라는 이론의 오류 (진화론은 뇌세포 조합 속에 자아와 의식을 가둠)
- 좌뇌와 우뇌의 분리;뇌량의 신경다발을 분리함. (한쪽 뇌의 신경발작이 다른쪽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그러면 의식이 두 개인가?
- 인식은 분리되어도 의식은 분리되지 않음.
- 뇌와 분리된 의식의 존재 확인.
-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의 몸을 덧입는다.
- 전기 자극에 의한 손올림;의식으로 막을 수 있다.
- 의식과 뇌는 분리될 수 있음.

